

4) 전례와 멀티미디어의 활용

전례에 있어서 미디어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여러 성음악들을 손쉽게 접하며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필자가 목포에서 성가대를 위한 특강 시간을 가졌을 때 멀리 외딴 섬에서 오신 성가대원 몇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거의 공소나 다름없는 작은 규모의 그 본당에서는 세 분의 성가대 단원께서 지휘자나 반주자 없이 그저 반주기계를 틀고 선창 봉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 분들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다. 반주기계가 아닌 고상한 오르간의 소리와 더불어 성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훈련받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분들이 몰라서 그리 하시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계의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 규정이나 지침은 없지만 지난 세기 동안의 교회 공식문헌들을 살펴보면 성음악에 대한 여러 세부 내용과 지침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성음악의 본질을 잊지 않는 한에서 충분히 활용가능하며 더욱 활성화 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1903년에 나온 성 비오 10세의 자의교서 「염려 가운데서」는 피아노와 밴드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19항과 20항) 목관악기의 사용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반면 1958년에 나온 전례성서의 「성음악과 거룩한 전례에 대한 지침」(이하 「성음악지침」)에서는 몇 가지 조건만 제시하고 있을뿐 그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악기들을 구분짓고 있지 않으며(60항, 68-69항) 반면 전자악기로 여겨지는 것들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70항). 그러나 이후 1963년에 나온 「전례헌장」에서는 여러 악기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할 지역 권위의 판단과 동의에 따라, 거룩한 용도에 적합하거나 적합해질 수 있고, 성전의 품위에 알맞고, 참으로 신자들의 교화에 도움이 된다면, 하느님 예배에 받아들일 수 있다”(120항)고 그 문을 더욱 넓히고 있으며, 1967년에 나온 예부성서의 「거룩한 전례의 음악에 관한 훈령」(이하 「성음악훈령」) - 이 문헌은 「전례헌장」보다 뒤늦게 나왔지만 그 바탕을 공의회 이후의 미사 전례가 아닌 이전의 트렌트 전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헌장과 달리 잘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에서도 이전과 같은 여러가지 전례적 조건과 제약사항들을 나열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전례헌장」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음악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그 입장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며 진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성가대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나 그 위치등을 비롯해서 이러한 예는 이외에도 매우 많다. 따라서 ‘신자들의 성화’라는 성음악의 최종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반주기계이든 반주 음원(MR)이든 혹은 유튜브나 여타 SNS든 활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혹은 봉사자의 부족으로 성음악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한 미디어 활용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며 어찌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를지도 모른다. 봉헌 성가나 영성체 성가때 아마추어 반주자가 들려 주는 다소 미흡한 전자 오르간의 소리보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 나오는 오케스트라 반주나 세련된 합창단의 연주가 -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실제 미사에 유용한 음원들이 많이 보급되어야 하겠지만 - 더 깊은 감명 속에 교우들의 성가를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이같이 팬데믹으로 인해 교우들이 다함께 성가를 부르는 제창(諸唱)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더욱 다양한 음악 및 그 부가적 도구를 활용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혹 팬데믹이 끝난 후 예전처럼 다함께 성가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물결로 여겨지기도 한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신곡이 발표되면 뮤직 비디오

오도 당연히 함께 발표된다. 하지만 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뮤직 비디오의 시초는 일반적으로 비틀즈가 1966년에 신작 싱글레코드인 "Paperback Writer/Rain"을 위한 홍보용 프로모션 비디오를 제작한 뒤 방송국에서 방영토록 한 것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조용필의 '허공'을 그 시작으로 잡는다. 이런 흐름에 이어져 현재 대중음악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음악 그 자체의 양상도 크게 변화되었지만 이에 덧붙여 엄청난 오디오 시스템, 화려한 배경 화면과 조명 및 무대장치와 군무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을 무아지경으로 몰아 넣는다.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음악은 더이상 '듣기만 하는 음악'이 아니라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보는 음악'으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물론 미사는 교우들을 무아지경으로 몰아 넣는 엔터테인먼트나 쇼 같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교우들이 미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해서 기도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느끼며 찬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도구의 일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는 전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전달하기 위해 기도문 외에도 다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전례에 첨가시켜 왔다. 우리는 성탄때 제대 앞에 구유를 꾸며 설치하기도 하며 대림시기에는 네 개의 초를 하나씩 켜 가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부활성야와 성탄전야 미사때는 모든 불을 끄고 예식을 시작하여 어두운 가운데 부활찬송과 찬미가가 울려 퍼지도록 하고 있으며 파스카 성삼일 시간전례 기도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도록 돕기 위해 촛불을 하나씩 꺼 가는 행위를 예식에 첨가시켰다. 전례중에 거대한 종들이 조합된 까리용(Carillon)을 이용해 그 장엄성을 더한다든가 성음악에 있어서 특히 파이프오르간이라는 거대한 악기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또한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들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 성상(聖像)들을 전례나 신심행사중에 이용하거나 떼제 기도모임에서는 모든 전등을 끈 채 촛불만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도 모두 엔터테인먼트의 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젊은 신부님들은 더 이상 말로만 강론을 진행하지 않는다. 여러 이미지와 동영상을 스크린에 비추고 음악도 돌려 주면서 멀티 미디어를 활용하는 강론은 젊은 신부님들 사이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성가에 있어서도 이런 요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소리를 내어 다함께 노래를 부를 수 없거나 혹은 노래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전례가 거행되는 중에 아름다운 독창이나 기악 앙상블 혹은 빼어난 독주를 실제 연주나 또는 음원으로 들려 줌으로써 교우들로 하여금 미사에 더욱 깊이 잠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의 전례나 성찬의 전례중 중요한 부분에서 성당 내의 조명을 달리 한다든가 룡핀조명을 이용하여 독서 말씀이나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성변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교우들을 돕는다거나 혹은 영성체 행렬이나 묵상 때 성화와 성가가 조합된 동영상을 그 날 전례의 주제에 맞춰 선정한 뒤 스크린에 비춰주며 교우들의 묵상과 기도를 유도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이런 동영상들은 그 수준에 관계없이 유튜브에 넘칠 정도로 많다. '보는 음악'의 시대에는 전례에 대한 교우들의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일선 본당에서도 여러 기기들과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